

형용사의 품사론*

이은경**

〈차 례〉

1. 머리말
2. 품사 논의와 형용사
3. 품사로서의 형용사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Haspelmath(2010)에서 제안한 비교 개념과 기술 범주의 구별을 받아들여 한국어 형용사 설정 문제를 다루었다. 비교 개념은 언어 간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유형론적 도구이다. 비교 개념으로서의 형용사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명사 속성을 서술하거나 제한하는 단어로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와 명사성 형용사로 나눌 수 있고, 관형사나 관형명사도 특정 기준에 따라 형용사로 포함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기술 범주로서의 형용사는 특정 언어의 문법적 특성을 기반으로 분류한다. 한국어에서는 기존의 형용사가 동사와 구별되기 어렵다.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형용사의 설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9품사 체계에서는 형용사가 용언의 하위 범주로 설정될 수 있으며, 관형사나 관형명사는 수식 기능과 무표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품사로 설정될 수 있다.

[주제어] 품사, 형용사, 비교 개념, 기술 범주, 관형사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머리말

본고는 한국어 형용사를 둘러싼 품사 논의를 살펴보고 개별언어로서의 한국어에서 형용사의 품사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오랜 기간 학교문법에서는 형용사라는 품사를 인정해 왔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형용사라는 품사를 인정하고 한국어 교육에 이용해 왔다.¹⁾ 그러나 형용사라는 품사 설정에 대한 논의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형용사는 동사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고 하는 주장도 계속되어 왔으며 한국어의 품사 가운데 하나인 관형사 설정에 대한 논의는 형용사 논의에 이어져 관형사로 분류된 단어들이 형용사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

또한 유형론적 입장에서 한국어 형용사와 다른 언어의 형용사를 비교하는 논의에서도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예를 들어 영어의 형용사는 명사에 가까운 품사라면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에 가까운 품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홍재성 1999, 2002, Sohn 2004). 한국어 형용사를 명사성 형용사와 동사성 형용사로 나누어 형용사의 외연을 넓히려는 논의도 있었다(목정수 2009, 2010, 2011, 2015).

먼저 유형론적 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자면 형용사라는 공통의 품사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유형론적 논의에서는

1) 학교문법에서의 품사 분류에 대한 논의는 최웅환(2009, 2010, 2011), 최형용(2015), 신승용(2023)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어 교육문법의 품사 분류에 대해 논의한 안주호(2011)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별개의 품사로 제시하기는 하지만 교재에 따라 형용사를 'adjective'로 부르기도 하고 'stative verb, descriptive verb, description verb' 등으로 동사의 한 종류로 부르기도 한다. 김홍범·윤교진(2020), 오현아(2023)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의 기준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2) 대부분의 문법론 개론서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많은 점에서 동질적인 범주라고 하면서도 형용사를 독자적인 품사로 기술했다(이익섭·채완 1999, 이익섭 2005, 국립국어원 2005, 구분관 외 2015, 고영근·구분관 2018, 유현경 외 2018, 남기심 외 2019, 문숙영 2023). 이익섭·임홍빈(1983:129)에서는 동사를 동작동사, 형용사를 상태동사로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기술했다. 김선영(2006), 송창선(2014)에서는 형용사를 동사와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형용사를 별개의 품사로 기술하고자 했다. 목정수(2002, 2005, 2006, 2008)에서는 종래의 형용사를 동사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형사, 관형명사 등을 형용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정수(2009, 2010, 2011, 2015)에서는 '출다'와 같은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 '새'와 같은 단어는 수식용법만의 형용사, '관념적'과 같은 단어는 명사성 형용사 또는 형용사성 명사로 분류했다. 형용사의 외연을 가능한 한 넓힌 입장이다.

근본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유형론적 품사론이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진행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³⁾ 이른바 영어의 ‘adjective’와 한국어 ‘형용사’가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사성 형용사와 동사성 형용사로 나눈다는 것은 이미 문법적으로는 이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론적 품사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⁴⁾

한국어의 품사론은 영어나 인구어의 품사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에 형용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단어에 대한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형용사를 설정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단어들을 형용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어들을 분류하고 이들 단어들의 집합에 대해 형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품사론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지만 분류의 과정에서 ‘형용사’라는 품사를 먼저 제시하고 이 품사에 속할 만한 단어를 찾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좀 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⁵⁾

유형론은 근본적으로 문법적인 특징이 다른 여러 언어들을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몇몇의 무리로 나누어 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모든 언어에 공통된 문법적 속성을 찾는 것도 유형론의 목표가 되겠지만 그런 문법적 속성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것보다는 문법적 속성을 공유하는 언어들끼리 묶어서 여러 부류로 나누고 개별 언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절차

3) 기존의 유형론적 품사 논의가 품사 설정의 기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인구어를 기준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의 존재를 전제하고 인구어의 형용사의 특성을 형용사 품사 논의에 반영한 느낌이 강하다. 유형론의 품사 논의는 의미, 담화, 화용을 품사 논의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는 형태, 통사적 특징은 특정 언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4) 유형론적 입장에서 형용사를 다룬 논의에는 Dixon(1977, 2004), Bhat(1994), Wetzer(1996), Beck(2002) 등이 있으며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에는 Sohn(2004)가 있다. 이들은 보편적인 범주로서의 형용사 설정의 가능성에 중점을 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5) Sohn(2004)에서는 학교문법의 형용사가 보편 범주인 ‘형용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한 반면 목정수(2002)에서는 학교문법의 형용사를 배제한 채 인구어의 ‘형용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찾아서 이를 형용사라고 부른 바 있다. 태도의 차이가 형용사 집합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를 중요한 연구 방식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품사론은 성립하기 꽤나 까다로운 영역이 된다.⁶⁾ 이른바 고립어, 굴절어, 교착어와 같은 유형은 단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른 것인데 형태론적 기준을 적용해서 단어를 분류하게 되면 품사론의 성격이 매우 다르게 될 것이다.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adjective’가 서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을 공통된 품사 범주 속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형론에서는 한국어에도 영어의 ‘adjective’에 대응하는 형용사가 있고 이 단어들은 동사의 특징을 많이 가진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adjective’가 서로 대응하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의미상으로는 이 둘이 서로 대응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 통사론적 속성까지 공유하는 하나의 공통된 유형론적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다.⁷⁾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Haspelmath(2010)에서는 특정 언어의 품사론과 유형론적 품사론의 작업은 전혀 다른 성격의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언어의 품사론은 해당 언어의 내적 질서에 맞는 품사 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유형론적 품사론은 비교를 위한 작업이므로 어느 정도 의미론적 기반의 비교 개념의 설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종류의 작업이 완전히 다른 작업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작업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근본적인 원리 같은 것도 없는 것이다.

본고는 Haspelmath(2010)의 관점에 따라 비교 개념과 기술 범주를 구별하고자 한다. 유형론적 형용사 논의는 비교 개념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기술 범주로서의 형용사의 설정 가능성은 개별 언어인 한국어의 문법적인 특징

6) 언어학에서의 품사론의 흐름을 정리한 연구로는 노종균(2014)를 참고할 수 있으며 유형론의 품사론에 대해서는 송경안·송진희(2007), 최형용(2012), 김건희(2013)를 참고할 수 있다.

7) Sohn(2004)에서 형용사의 분류 기준을 ‘의미’에 한정했다고 하면 상태나 속성의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는 Sohn(2004)에서 형용사에 포함시킨 단어들 외에도 더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형론에서 특정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다양한 언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주 설정의 기준이 필요한데 Haspelmath(2010)에 따르면 이들 기준에 대한 논의는 비교 개념의 논의에 속하는 것이다.

을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의 작업을 통해 비교 개념의 설정을 통한 형용사 논의와 기술 범주로서의 형용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 품사 논의와 형용사

1) 형용사 품사 논의의 쟁점

형용사는 한국어 품사 중에서 명사나 동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존재가 안정적이지는 않은 품사이다. 물론 학교문법이나 사전에서는 형용사를 한국어 품사 중의 하나로 인정한다. 문법론 개론서에서도 형용사를 품사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용언의 하위 범주로 동사와 대등한 품사로 형용사를 설정한다.

그러나 문법서에 따라서는 동사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기도 한다. 동사를 객관동사와 주관동사로 나누고 객관동사를 다시 행위동사와 기술동사로 나눌 때 형용사는 기술동사와 주관동사로 명명되는 것이다(목정수 2002).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이러한 처리는 형용사를 독자적인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품사를 어디까지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때 이를 9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별개의 품사가 될 수 있지만 9품사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는 별개의 품사가 아니게 된다. 이는 현재 학교문법에서 관형사를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지시 관형사로 더 분류하지만 이들을 별개의 품사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아마 품사를 9가지보다 더 많은 종류로 나눈다면 이들 관형사의 하위 부류들도 별개의 품사가 될 수

8) 한국어 교재에서 형용사를 'stative verb, descriptive verb, description verb'로 부르는 것은 형용사가 동사와 유사하게 어미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사용되는 문법적 특징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있을 것이다.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이 품사 분류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와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게 된다. 그러나 현재 9품사를 인정하는 체계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는 별개의 품사가 된다. 만약에 동사를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나누더라도 9품사를 인정하는 체계에서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작동사, 상태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뉘게 되므로 동사와 형용사는 별개의 품사로 나뉘게 된다.

그러니까 동사의 하위 부류로 형용사를 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사, 대명사, 수사들 사이의 차이보다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더 작아서 이 둘을 나눌 수 없어야 형용사를 동사의 하위 부류로 포함시키게 되고 형용사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명사와 대명사, 수사의 형태·통사적 차이가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통사적 차이보다 더 큰지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격조사를 취하면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모두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 의미론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이 셋은 동일한 형태·통사적 행태를 보인다고 해야 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동사와 형용사를 어느 층위에서 구별하더라도 명사, 대명사, 수사의 분류 층위보다 낮게 될 가능성은 작은 것이다.

명칭의 문제에서 ‘동사’라는 명칭은 ‘움직임’과 관련이 되므로 동작 동사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 두 개가 나열된 것으로 보이고 상태 동사는 상충하는 의미의 단어 두 개가 나열된 것 같다. 그러므로 기능에 따라 동사를 ‘서술사’ 정도로 부른다면 동사와 형용사를 ‘동작 서술사’와 ‘상태 서술사’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용사가 동사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고 할 때 생기는 명칭의 어색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용언의 하위 부류로 동작 용언, 상태 용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형용사를 동사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자 하는 논의는 결국 품사 분류의 층위, 품사 분류의 기준, 품사 체계의 수와 같은 문제와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⁹⁾ 기준이나 품사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 형용사 설정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형용사와 동사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형용사라는 품사 그 자체의 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의 유형론이나 대조언어학적 입장의 형용사 논의는 지금까지의 형용사에 대한 품사론적 논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형용사와 동사의 구별과 같은 전통적인 품사 논의와 달리 형용사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파악한다. 물론 모든 유형론적 논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목정수(2002, 2005, 2006, 2008)의 일련의 논의는 영어 형용사에 대응하는 단어를 한국어에서 확인하는 작업처럼 보인다. 목정수(2002, 2005, 2006, 2008)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어의 형용사에 대응한 단어들을 한국어에서 확인하고 이를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리우완잉(2017)과 같이 대조언어학에 가까운 논의에서도 한국어의 형용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는데 그때도 역시 영어의 형용사에 가까운 단어를 한국어에서 찾아 이를 형용사로 부르게 된다. 물론 중국어와의 대조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활용을 하지 않는 단어인 관형사 일부가 형용사로 분류되게 된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형용사를 형용사 논의에 포함시키는 Sohn(2004)의 논의도 있다. 유형론에서는 명사와 동사 사이에 형용사를 위치시키고 명사의 속성을 많이 가지면 명사성 형용사라고 부르고 동사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면 동사성 형용사라고 부른다. 영어의 경우에는 명사성 형용사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어 형용사의 경우에는 동사처럼 활용을 하므로 동사성 형용사에 해당하게 된다. Sohn(2004)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형용사라고 불리던 단어들을 대상으로 유형론적 품사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이다.¹⁰⁾

이에 반해 목정수(2002, 2005, 2006, 2008)에서는 전통적인 형용사를 두

9) 우순조(2009)에서는 부사 '더'와의 결합 현상을 토대로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를 기술했다. 이에 대해 Yeo(2004, 2005)에서는 통사론적 현상을 토대로 형용사를 동사와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 Rijkhoff(2000)에서도 한국어를 형용사가 동사에 속하는 언어로 분류했으며 Wetzer(1996)에서도 동사성 형용사 언어로 분류했다.

고 이것이 명사성 형용사인지 동사성 형용사인지 논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어의 형용사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아서 형용사로 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성질, 속성, 상태 등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학교문법의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가 되고 관형사나 관형명사, 술어명사, 어근 등은 명사성 형용사가 되는 것이다.¹¹⁾ 이는 일본어의 형용사 및 형용동사라는 분류와 평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명사에 걸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어떤 한 언어의 형용사가 하나의 특징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기반으로 한 형용사 품사론의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리우완잉(2017)은 한국어 관형사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기술했는데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조했다는 점에서는 대조언어학적 논의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형사라는 품사를 인정하는 대신 관형사에 포함된 단어들을 형용사, 대명사, 수사, 부사 등에 귀속시켰다. 서술어로 사용되지 않는 수식 전용 형용사에 일부 관형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1)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갖은, 고얀, 긴긴, 대모한, 먼먼, 오랜, 외만, 한다하는(한다는),
허튼, 험, 몹쓸, 애먼, 새; 모든, 못, 온갖, 온; 다른, 만, 여느

이렇게 서술어 기능이 없는 형용사를 인정하려면 형용사의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 리우완잉(2017:각주12)에서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정의했다. 그렇게 되면 ‘형용사’에는 일본어의 형용동사나 중국어의 구별사까지도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의미에 기댄 품사의 정의를 택하게 되면 형태 통사적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이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11) 명사 수식 성분으로만 사용되는 ‘간이, 구급, 국제’와 같은 한자어를 김영옥(1994)에서 ‘관형명사’로 명명했다. 관형명사의 목록은 이선웅(2000)에 제시되어 있다. 이병규(2005:66)에는 상태성을 나타내는 술어명사로 ‘게으름, 그리움, 기쁨, 도움, 무서움, 발랄함, 부산, 부지런, 슬픔, 아름다움, 아쉬움, 어색함, 푸름, 곤란, 권태, 냉담, 부실, 부족, 부진, 부패, 불만, 불안, 비대, 빈약, 평화’와 같은 단어를 제시했다.

목정수(2002, 2005)는 의미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인구어의 형용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서 전형적인 유형론적 연구와는 다르다. 목정수(2002, 2004)에서는 기존의 형용사를 주관동사로 분류했으므로 형용사 범주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한국어 관형사는 영어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과 같은 용법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한국어 관형사는 형용사로 분류되게 된다. 또한 이른바 기능동사 ‘하다’와 결합하는 요소들을 형용사에 포함한다. 여기에서 의미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목정수(2006)에서는 형용사의 외연이 조금 더 넓어진다. 목정수(2002, 2005)에서 형용사에서 제외한 이른바 주관동사를 동사성 형용사(verb-like adjective)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의 근거는 의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미에 관한 서술이 그리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형용사나 관형사로 다루어진 단어들과 어근으로 다루어진 언어 단위들 가운데 상태, 속성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통사론적 행태에 주목할 뿐이다. 형용사라는 품사를 인정할 만한 기준의 설정이 없다면 결국 이들은 영어의 형용사에 대응하는 단어나 어근을 하나로 모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유형론과 형용사의 품사론

기존의 유형론적 품사론이 비교 기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인구어의 형용사를 표준으로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언어의 단어들을 형용사 범주에 넣었다고 볼 수 있다. 김건희(2013)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유형론적인 품사론은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여러 언어의 형용사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서 품사 범주인 ‘형용사’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어 형용사의 경우를 본다면 Dixon(2004)의 형용사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어 형용사를 기술한 Sohn(2004)의 경우, 기존에 한국어 문법에서 형용사라는 품사에 소속된 단어들을 일단 형용사라고 하고 이 단어들이 유형론

에서 설정한 형용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그래서 유형론적으로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의미 목록을 한국어 형용사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한국어에도 형용사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형용사의 형태·통사적 성격은 동사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목정수(2002)는 일단 영어의 형용사를 표준으로 두고 영어의 형용사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아서 이를 하나의 범주에 소속시키고자 했다. 초기에는 기존의 형용사, 즉 동사에 가까운 형용사를 동사에 소속시키고 관형사, 관형명사, 어근 등을 형용사라는 범주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어 형용사는 영어의 형용사에 근접하게 되고 명사에 가까운 형용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형론의 연구 방법을 어떻게 개별 언어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게 되므로 기존의 설정 못지않게 기존의 적용이라는 과정도 매우 중요해진다. 각각의 언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용사라는 품사를 인정한 후에 유형론적 기준에 따라 그들 형용사들의 성격을 기술하게 되면 한국어의 예처럼 형용사가 동사성 형용사라는 판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유형론적 기준을 적용할 때 기존의 해당 언어의 범주를 일단 무시하고 유형론적 기준에 적합한 단어들을 찾아서 이들을 형용사에 포함시키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준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언어에 편향된 기준의 설정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형용사라는 범주를 설정할 때 형용사 범주의 속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기준 적용의 결과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영어의 형용사의 속성을 그대로 유형론적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형용사라는 범주에 소속되게 된다. 그런데 동사성 형용사라는 결과를 낳으려면 영어의 형용사의 속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언어의 단어가 동사나 명사 쪽으로 움직여도 형용사라는 범주에 소속시키기 위한 형용사의 속성의 변동이 필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보편적인 범주의 설정에서 시작하는 작업에 문제가 있다

는 생각이 Haspelmath(2010)에서 제시된다. Haspelmath(2010)은 언어 간 비교 연구에서 비교 개념(Comparative Concept, CC)과 기술 범주(Descriptive Category, DC)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교 개념은 언어 간 비교를 위해 언어학자가 만든 도구이며, 기술 범주는 개별 언어의 문법 내에 존재한다. Haspelmath(2010)에서는 언어적 범주에 대한 보편주의적 가정을 비판하며, 더 유연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각 언어의 기술 범주는 해당 언어의 고유한 문법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정의된다. 이는 보편적 범주가 아니며, 언어 간에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대응되지 않는다. 언어 간 비교는 언어 고유의 범주가 아니라, 연구자가 정의한 비교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 개념은 특정 언어 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비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범주 보편주의(Categorical Universalism)는 모든 언어가 공통적인 문법적 범주를 공유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실제 연구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낸다. 언어마다 독특한 범주와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교 개념(CC)은 언어 간 비교를 위해 언어학자가 정의한 분석 도구이다. 비교 개념은 특정 언어에 고유하지 않고, 여러 언어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형용사는 비교 개념으로서는 “명사의 속성을 서술하고 제한하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다. 기술 범주(DC)는 특정 언어의 문법적,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정의된 범주이다. 각 언어 고유의 범주이며, 다른 언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의 ‘여격(Dative)’은 영어의 여격과 동일하지 않다. Haspelmath(2010)은 비교 개념은 유형론적 비교를 위한 도구이고, 기술 범주는 언어 고유의 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둘을 혼동하면 언어 보편성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다.

비교 개념은 언어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시제는 “발화 시점 이후의 사건을 나타내는 모든 언어적 표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한 언어에서는 시제(tense)로, 다른 언어에서는 양태(modal)로 실현될 수 있다.

아래는 Haspelmath(2010)에서 비교 개념으로 정의한 형용사, 미래 시제, 의문사 이동, 의문사, 관계절, 재귀대명사, 능력이다.

(2) 형용사 정의: 형용사는 기술적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항이며, 명사의 지시를 좁힐 수 있다.

(3) 미래 시제 정의: 미래 시제는 동사와 관련된 문법적 표지로서, 주요 의미 중 하나로 미래 시간 지시를 가진다.

(4) 의문사 이동 정의: 의문사 이동은 의문사(또는 의문사 구)가 일반적으로 그 비-의문사 대응어가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위치에 나타나는 구문 패턴이다.

(5) 의문사 정의: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또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로, 즉 설명 의문에서 질문되는 내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6) 관계절 정의: 관계절은 지시적 구의 지시 대상을 좁히는 데 사용되는 절로, 해당 지시적 구의 지시 대상이 의미역을 담당하는 절이다.

(7) 재귀대명사 정의: 재귀대명사는 동일한 절에서만 선행사와 공지시될 수 있는 특별한 대용 표현이다.

(8) 능력 정의: 능력은 형태론적 표지로, 그 기능 중 하나로 전형적인 타동사 절의 행위주를 표시하며, 이는 자동사 절의 논항과 다르게 표시된다.

전체적으로 개념-의미론적 개념이 중심이 된다. 의문사 이동에서만 개념-의미론적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의문사 이동이 모든 언어의 비교에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한국어에 의문사 이동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정의가 개념-의미론적 개념과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법 단위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구성된다. 즉, 어휘항, 명사, 문법적 표지 등이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문법적 용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비교 개념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다.

형용사의 정의에는 기술적 속성이라는 개념-의미론적 부분과 문법 개념인 ‘어휘항, 명사’가 포함되며 ‘지시’라는 의미-화용적 개념이 포함되었다. ‘좁히다’라는 기능은 문법론적 개념이며 전형적으로는 ‘수식’이라고 부르는

기능에 포함된다. 영어의 형용사가 ‘수식’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 형용사의 기능 중 일부분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비교 개념으로서의 형용사를 명사 수식 성분이라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형적으로 한국어에서 이러한 정의를 만족하는 품사는 관형사나 관형명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명사의 지시를 좁힐 수 있는 단어에 관형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문법 표지를 동반하게 되면 명사도 명사의 지시를 좁힐 수 있으며 동사나 형용사도 마찬가지이다.¹²⁾ 그래서 결국 개념-의미론적 개념인 ‘기술적 속성’이 비교 개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Dixon(2004)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이른바 상태, 속성, 성질 등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형용사라는 비교 개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품사로서의 형용사

1) 비교 개념으로서의 형용사

비교 개념으로 ‘형용사’라는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라고 부르는 단어들이 가지는 어떤 특성에 대해 정해 두어야 한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이다. 이른바 성질이나 속성, 또는 상태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해당 언어에서 어떤 단어들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형용사의 의미 특성에 대한 논의로는 Dixon(1977)이 있다. Dixon(1977:31)에서는 영어 형용사는 일곱 가지 의미 유형(semantic type)으로

12) Croft(2000)에 따르면 전형적인 기능의 수행에는 유표적인 형태·통사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유표적인 기능의 수행에는 유표적인 형태·통사적 장치가 필요하다. 영어에서 명사가 수식 기능을 수행하려면 속격이나 전치사가 필요한데 이는 명사의 경우 수식 기능이 무표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조사 ‘의’가 수반되기도 하며 동사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야 하므로 명사나 동사는 수식 기능이 전형적인 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구성된다.

1. 치수(DIMENSION) — big, large, little, small; long, short; wide, narrow; thick, fat, thin.
2. 물리적 성질(PHYSICAL PROPERTY) — hard, soft; heavy, light; rough, smooth; hot, cold; sweet, sour.
3. 색(COLOUR) — black, white, red.
4. 인간 성향(HUMAN PROPENSITY) — jealous, happy, kind, clever, generous, gay, cruel, rude, proud, wicked.
5. 연령(AGE) — new, young, old.
6. 가치(VALUE) — good, bad.
7. 속도(SPEED) — fast, quick, slow and just a few more items.

Dixon(2004)에서는 여기에 다른 의미 유형을 추가했는데 손호민(2008:69)에서 한국어 예를 포함하여 난이도(쉽다/어렵다, 복잡하다/간단하다), 유사성(같다/다르다, 비슷하다), 적격성(맞다/틀리다, 적당하다/가능하다), 양(많다/적다, 충분하다/부족하다), 위치(높다/낮다, 멀다/가깝다), 기수(하나, 둘, 셋째)로 소개했다. 이들 의미 유형을 기반으로 이들 의미 유형이 특정 언어에 어떤 단어들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할 수는 있다. 실제로 Sohn(2004)에서는 한국어 형용사를 이와 같은 의미 유형을 통해 기술했다.¹³⁾ Wetzer(1996)에서는 이들 의미 유형 중 나이(age), 크기(dimension), 가치(value)가 언어마다 어떤 유형의 단어로 나타나는지를 주로 서술어 용법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¹⁴⁾

물론 Croft(2000)처럼 문장에서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Haspelmath

13) 그런데 Sohn(2004)에서는 관형사, 관형명사, 어근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학교문법에서 형용사로 분류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14) Wetzer(1996:270)에서는 한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성 형용사 부류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는 학교 문법에서 형용사로 간주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분류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Wetzer(1996:271)에서 일본어는 혼합 언어(Mixed language)에 속한다.

(2010)의 비교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비교 개념에는 하나의 개념이나 속성만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Croft(2000)의 분류 기준에는 ‘수식’이라는 성질도 포함된다. ‘속성’과 ‘수식’은 전형적으로 영어의 형용사인 ‘adjective’에 대응한다.¹⁵⁾ 결국 Croft(2000)는 개념 설정을 통해 품사론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영어 중심의 품사론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Croft(2000:89)의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품사의 개념 공간(conceptual space for the parts of speech)

	지시	수식	서술
대상	대상 지시: 무표적 명사	대상 수식: 속격, 형용사화류, 전치사구 내 명사	대상 서술: 서술 명사류, 계사
속성	속성 지시: 형용사 파생 명사	속성 수식: 무표적 형용사	속성 서술: 서술 형용사, 계사
동작	동작 지시: 동작 명사류, 보어, 부정사, 동명사	동작 수식: 분사, 관계절	동작 서술: 무표적 동사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의미’라는 비교 개념만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교 개념이 한 언어에서 드러내는 문법적 범주가 너무 다양해진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속성’이라는 비교 개념으로 한국어의 단어들을 기술하게 되면 기존의 다양한 품사에 속한 단어들이 ‘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에 속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학교문법에서 ‘형용사’에 속한 단어들은 당연히 비교 개념으로서의 형용사에 포함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새’와 같은 관형사 역시 형용사에 속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술어명사 중에서 상태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도 형용사에 속하게 된다. 한국어에서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동사에 속하는 단어들과 명사에 속하는 단어들을 포함하며 한국어에만 인정되는 품사인 관형사도 포함되게 된다. 좀 더 정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속성’이라는 개념의

15) 유형론의 다른 논저인 Wetzer(1996)에서는 서술 기능을 중심으로 ‘adjective’를 논의하기도 하므로 수식이 반드시 형용사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교 개념일 필요는 없다.

하위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이 형용사, 명사, 관형사에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에 기반을 둔 비교 개념을 선택하게 된다면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와 명사성 형용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식 전용 형용사를 명사의 하위 부류로 인정하게 된다면 형용사를 동사성 형용사와 명사성 형용사로 나누고 명사성 형용사는 수식 전용 형용사와 범용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수식’이라는 기준을 포함한 비교 개념으로 형용사를 설정할 경우에는 관형사가 이 개념에 대응하는 품사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관형명사로 불렸던 단어들도 포함되게 될 것이다. 또한 목정수(2002, 2005, 2006, 2008)에서 형용사로 간주된 외래어들도 포함되게 된다. 비록 그 형태소들이 단어인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단어로 간주하게 된다면 그들도 수식 전용의 단어로 수식이라는 비교 개념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목정수(2009:403)에서 명사성 형용사로 분류한 단어(어근)에는 ‘조용-하다’, ‘단순(單純)-하다’의 ‘조용, 단순’과 함께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sexy-하다, cool-하다, fantastic-하다’의 ‘섹시, 쿨, 판타스틱’이 명사성 형용사의 예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단어로서의 지위가 애매하다. 이들은 사전에 단독으로 실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섹시하다’와 같이 복합어의 형태로 실린다. 사전에서는 이들을 ‘어근’으로 분석한 것이다.¹⁶⁾ 이들을 어근으로 볼 경우에는 품사 분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¹⁷⁾

이러한 비교 개념은 유형론적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의미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수식’과 같은 통사적 개념이 유형론적 연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속성’과 ‘수식’이라는 개념 복합은 제한된 단어들에 대한 기

16) 이는 그동안 한자어들 중에서 일부가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다른 단어의 일부로만 사용되던 한국어의 형태론적 전통을 계승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7) 이들이 단어인지를 관별하는 작업은 품사 분류에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본고는 유형론적 품사 분류와 개별언어의 품사 분류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어 관별에 관한 논의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술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을 보여 주는 데 유효하다면 그러한 비교 개념의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속성’과 ‘수식’이라는 비교 개념에 대응하는 단어가 영어의 형용사라면 한국어에서는 이른바 관형명사와 관형사가 여기에 대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두 언어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식이라는 기능에 대응하는 형식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속성’과 ‘수식’을 좀 더 유연하게 비교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이른바 동사성 형용사나 술어명사에 대해서도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

동사성 형용사는 수식의 기능을 위해 수식을 도와주는 통사적인 장치와 결합하게 된다. 이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동사와 동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게 된다. 다만 유효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된다면 동사성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수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문법적인 장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 단어의 수식 기능은 유효적이라고 기술해야 한다.

술어명사의 경우에는 기능동사와의 결합을 통해 서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그 자체로 수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명사와는 차이점을 보일 수도 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술어명사가 격조사 ‘의’ 없이 수식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명사는 명사가 수식 기능을 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또한 술어명사가 기능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서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식 기능만 가지는 관형사와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 개념을 설정하는 품사론의 경우에는 논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교 개념의 설정이 가능하다. ‘속성’이나 ‘상태’라는 단일한 의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의미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모으고 이들의 양상을 언어별로 비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기존의 형용사, 관형사, 관형명사, 상태성 술어명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형태, 통사적인 양상을 기술할 수 있다. Dixon(2004)와 같이 속성이나 상태라는 의미를 좀 더 세분화게 된다면 이들 의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외에 원초적인 분포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수식’이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식 기능을 포함하게 되더라도 형용사, 관형사, 관형명사, 상태성 술어명사 모두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무표성이라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게 되면 관형사, 관형명사만이 포함된다. 기존의 형용사는 어미와 결합해야 수식의 기능을 하게 되고 술어명사 역시 조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의 형용사와 상태성 술어명사의 수식 기능을 무표적이라 부르는 어렵다.

2) 기술 범주로서의 형용사

Haspelmath(2010)의 기술 범주(descriptive category)를 품사론에 적용해서 한국어의 형용사 범주의 설정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비교 개념이 기술 범주에 대응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영어의 형용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영어의 형용사는 동사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며 명사와도 구별될 수 있다. 물론 명사의 분포를 주어나 목적어뿐만 아니라 지정사의 보어와 다른 명사의 수식어로 넓힐 경우에는 영어의 형용사만의 분포적 특징이 잘 안 드러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명사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별개의 품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러한 기술 방식은 한국어 형용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어미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형용사는 분포가 동사와 유사하다. 물론 한국어 동사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는 형태론적 특징이 될 수 있다.¹⁹⁾ 그런데 많은 논저

18) 형용사라는 품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품사 분류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기존의 분류 기준 논의를 참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신지연(1999), 송경안·송진희(2007), 박진호(2010), 구분관(2010), 최형용(2012, 2015), 김건희(2013), 최성호(2015), 신승용(202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9) 한국어 용언이나 체언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용언

에서 한국어 동사를 이른바 어간까지로 국한시키고 어미 부분은 독립된 통사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결국 활용을 한다는 특징으로 동사를 분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한국어 동사를 활용하는 단어라고 간주하면 그러한 형태론적 특징을 이른바 형용사가 공유하는 것은 자명하다. 일부 어미의 결합에서 동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통해 형용사를 동사와 구별되는 품사로 간주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경우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품사의 차이로 볼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²⁰⁾

동사가 활용을 하지 않고 어미가 동사와 직접 결합한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사구와 어미가 결합하는 것처럼 형용사구도 어미와 결합하므로 역시 동사와 형용사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동사구의 핵이 동사인 것처럼 형용사도 형용사구의 핵이 된다. 이러한 통사적 특징을 공유하므로 이 둘을 용언이라는 큰 범주로 묶은 후에 세부 범주로 동사와 형용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관형사와 관형명사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²¹⁾ 관형사의 존재를 기술 범주로서의 한국어의 품사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²²⁾ 목정수(2002, 2005, 2006, 2008)에서는 이를 형용사에 포함시키려 했다.²³⁾ 이

이나 체언에 인구어의 활용과 같은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논의는 박진호(1994), 우순조(1997), 구분관(2005), 최웅환(2011), 최형용(2012), 김건희(2013) 등이 있다.

20) Croft(2000:67-79)에서는 Hengeveld(1992)가 품사가 나누어지지 않는 언어를 설정한 데 대해 분포를 정밀히 기술하지 않고 몇 가지 기준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도달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적용해서 나눌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1) 본고가 형용사에 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형용사를 '상태동사' 또는 '기술동사'로 명명하게 되면 목정수(2002)의 주장대로 기존의 관형사를 형용사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형용사 논의에 관형사를 포함하기로 한다.

22) 이정택(2003)은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서 부사 또는 수식사로 분류했다. 송경안·송진희(2007)은 관형사를 지시사, 형용사, 수량사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장영희(2001), 배진영(2010)은 관형사 중 일부는 명사, 수사, 접두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른 품사에 소속시킬 수 없는 단어들은 관형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웅환(2013)은 통사적인 특징을 통해 관형사를 독립된 품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관형사를 형용사로 부르는 것은 관형사라는 품사를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를 부정하는 것은 관형사에 속한 단어를 용언의 활용형, 명사, 대명사, 수사에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학교문법의 형용사를 객관동사라고 부르고 관형사를 형용사로 부르는 것은 명칭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는 유형론적 논의와 관련이 있으나 다른 유형론적 논의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어떤 점에서는 영어 품사론을 한국어에 정직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형용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찾으면 거기에 가장 근접한 단어들이 관형사인 것이다. 수식적인 용법의 형용사가 관형사인 것이다.

기술 범주로서의 관형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의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형사가 기술 범주로서의 독자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²⁴⁾ 용언의 관형사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관형사는 용언에 포함시킬 수가 있으며 명사나 대명사, 수사와 모습이 같은 관형사는 해당 품사에 소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품사에 소속시킬 수 있는 관형사를 제외하고 나면 관형사라고 하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품사에 소속되는 단어의 수가 적다고 해서 해당 품사를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품사는 특정한 기준에 속하는 단어들의 부류에 해당되므로 그 특정한 기준이 다른 품사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특징이라면 해당 품사를 독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형용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Dixon(2004)에서 제기한 문제이다. 특정 언어는 다른 품사에 속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특징을 갖는 단어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 단어들을 형용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관형사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형사만의 독자적인 성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가령 ‘새 책’에서 ‘새’를 다른 품사에 소속시킬 수 없는 독립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는 15세기에는 명사였으므로 명사에 속하는 단어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 ‘새’는 명사의 일반적인 결합관계를 충족하지 못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도 않는 명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의라면 용언의 한 종류인 형

24) 목정수(2002:76-80)에서는 ‘관형사’라는 품사가 영어의 관사와 형용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영어의 관사에 한국어의 관형사가 대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선미(2007)은 한국어의 관형사가 다른 관형성분과는 달리 프랑스어의 한정사(Déterminant)에 대응하는 범주라고 주장했다.

용사도 그냥 분포가 조금 더 제약되는 동사일 뿐이다. 또한 대명사와 수사도 명사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식의 기능만 하는 단어들은 독자적인 품사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분류에서 명사의 분포를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성분, 조사와의 결합, 관형어의 수식, 다른 명사의 수식으로 하고 이 조건에 하나라도 걸리면 명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 종전의 관형사는 명사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수식을 명사의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형사와 관형명사는 명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²⁵⁾ 명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명사는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식’은 명사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수식이라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명사의 문법적 특징 모두를 기준으로 품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관형사는 독자적인 품사로 성립하게 된다.²⁶⁾

관형사의 외연에 관한 문제를 보기로 하자.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명사의 경우에는 개념-의미의 관점에서는 형용사나 관형사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문법적인 성질을 고려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명사에 포함될 수 있다. ‘성적의 부진, 한반도의 평화, 천연자원의 부족’과 같이 선행하는 수식 성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불안이 시작되었다’처럼 주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술어명사는 개념-의미는 형용사나 관형사와 유사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명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른바 수식 기능만 담당하는 ‘국제’와 같은 단어들만 관형사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관형명사에 관한 논의는 대개 이들을 관형사로 처리하지 못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품사론 논의에서 어떤 단어들이 특정 범주에 소속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들이 명사에 속할 만한 적극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식이라

25) 이선웅(2000:46)에서처럼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관형명사는 관형사에서 제외되어 명사에 속하게 된다.

26) 박진호(2010:34)에서는 결합 관계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했는데 관형사는 ‘체언이 그 뒤에 와야 함’이라는 기준으로 독자적인 품사로 분류했다.

는 명확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형명사들은 명사로 판정할 만한 확고한 기준이 없는 한 관형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²⁷⁾

목정수(2002, 2005, 2006, 2008)에서 형용사로 분류한 단어들 가운데에 ‘하다’와 결합하여 학교문법의 ‘형용사’로 기술되는 단어들이 있다. ‘긴급, 유명’ 등은 ‘긴급 출동, 유명 인사’ 등과 같은 구성에 나타날 수 있으며 ‘긴급하다, 유명하다’와 같은 구성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긴급하다, 유명하다’를 통사 구성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긴급, 유명’은 수식 기능도 가지고 서술 기능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성호(2015:11)에서는 ‘긴급하다, 유명하다’를 합성어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색하기로 유명해’와 ‘인색하기로 유명 인사’를 비교하면서 이들 구성의 문법성 차이는 두 구성의 ‘유명’이 하나의 어휘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색하기로 유명해’는 ‘유명하’라는 단어에 의해 ‘인색하기로’라는 구성이 허용되는 데 반해 ‘유명’이라는 단어는 ‘인색하기로’라는 구성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수식 기능도 하면서 ‘하다’와 결합하는 단어들은 수식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단어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²⁸⁾

이러한 분석은 외래어를 어근으로 하는 구성에도 적용된다. ‘섹시하다’의 ‘섹시’를 단어로 인정하고 ‘섹시 미소’, ‘섹시 하다’와 같은 통사 구성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섹시’는 수식과 서술의 기능을 다 하는 단어가 되겠지만 ‘섹시하다’를 하나의 단어로 분석한다면 명사에 선행하는 ‘섹시’만 품사 분류의 대상이 된다.

27) 명사에 결합하는 접미사가 결합한다는 특성은 품사론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기준이 아닌가 한다. 관형사 가운데 일부는 접미사와 결합할 수 있다고 기술할 때 관형사라는 품사의 성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8) 앞 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어나 통사원자를 분석해 내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음운론적 현상과 문법 분석 사이의 관계도 그리 명확하지 않다. 최근에는 통사원자가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조적인 경계가 통사적인 경계인지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황화상(2016:85)에서 ‘이지러는 겹으냐’를 분석하면서 ‘[[이지러]는] [지-]]’의 형식적 구성이 기능적으로는 ‘[[이지러지]][는]]’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면 ‘이지러는 겹지만’의 용언 어간 부분을 기능적으로 ‘이지러 지-’의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자상은 하다’에서 ‘은’이 음운론적으로는 ‘자상’에 결합하고 있지만 통사적으로는 ‘자상하’까지를 한정 범위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자상은 하다’와 같은 어근 분리 현상을 근거로 해서 ‘자상’을 통사원자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형사는 명사의 분포 가운데 극히 주변적인 분포만을 가진 품사이기 때문에 관형사 중의 일부는 명사의 분포를 가지는 분포의 확장이 가능하다. 물론 명사의 일부는 분포의 축소를 통해 관형사로 품사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용언의 관형사형 일부가 용언의 다른 분포를 모두 잃고 명사 수식이라는 분포만 가지게 된다면 이들 단어 역시 관형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식이 명사만의 기능이었다면 관형사는 명사의 하위 부류가 될 수도 있지만 용언의 수식 기능 역시 용언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므로 명사 수식이라는 기능만으로도 하나의 품사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 범주의 관점에서 품사를 기술할 경우에도 기준의 설정과 품사의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수준에서 ‘형용사’를 다른 품사와 구별할 수 있는지는 기준 적용의 층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체언과 용언의 구별은 중요하다. 한국어에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구의 보충어와 어미구의 보충어에 속하는 단어로 체언과 용언은 구별된다. 용언을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는 것은 매우 세밀한 기준을 적용할 때 가능하다. 또한 형용사를 용언이나 서술사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게 되면 상태 서술사나 상태용언으로 부를 수 있다.

기존의 형용사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 수식만을 담당하는 단어들을 형용사로 부를 수 있다. 이들 형용사는 수식언의 일부이지만 수식의 대상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한정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부사와 구별할 수 있다. 이들에는 관형사와 관형명사가 속하게 된다. 이들을 형용사로 부를 수도 있고 명사 수식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의 품사 논의를 개괄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유형론의 품사론과 개별언어로서의 한국어 품사론이 구별되지 않은 상

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Haspelmath(2010)에서는 유형론을 위한 도구와 개별 언어의 문법 범주는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는 ‘비교 개념’으로 후자는 ‘기술 범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고는 비교 개념과 기술 범주의 구별을 받아들여 한국어 형용사의 품사 논의에 적용해 보았다.

비교 개념은 언어 간의 비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형용사를 명사의 속성을 서술하거나 제한하는 단어로 정의한다. 이에 반해 기술 범주는 특정 언어의 문법적,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품사를 분류한다. 비교 개념과 기술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언어 간 비교와 개별 언어의 내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각각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비교 개념으로서의 형용사를 설정하면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와 명사성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다. ‘상태, 속성’ 등과 같은 의미를 비교 개념으로 사용하면 기존의 형용사뿐만 아니라 관형사, 관형명사,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명사 등도 형용사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수식’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유표성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관형사, 관형명사 등만 형용사에 포함되게 된다. 기존의 형용사는 서술이 주된 기능이며 술어명사는 지시가 주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기술 범주로서의 형용사를 설정하면 품사 분류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분포나 결합관계라는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형용사는 동사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층위까지 품사를 세분할 것인가에 따라 형용사의 설정 여부가 정해진다. 9품사 체계에서는 용언의 세부 범주로 형용사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관형사 역시 수식이라는 기능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여기에 무표성이라는 기준을 포함시키면 별도의 품사로 설정할 수 있다. 관형명사 역시 명사의 무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관형사에 속하게 된다.

‘자상은 하다’와 같은 예를 통해 ‘자상’을 단어로 분리해서 품사 논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구성은 어근 분리 현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은’이 ‘자상’에 결합한 것은 음운론적인 차원의 일이며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자상하’ 전체에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 개념의 설정은 유형론적 비교 작업에 필요하나 본고의 목적이 비교 개념과 기술 범주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비교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형용사와 관련해서 특정한 비교 개념을 설정해서 유형론적인 비교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이 개념이 한국어의 단어 분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만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한국어 형용사 논의 가운데 기존에 형용사로 분류된 단어들 외에 관형사, 관형명사 등을 형용사에 포함시킨 논의는 비교 개념의 논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형용사 논의를 기술 범주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것은 기존의 품사 논의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활용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면 용언의 하위 부류로 주관동사(기술동사)를 설정할 수 있고 수식언의 하위 부류로 형용사(명사 수식언)를 설정할 수 있다. 형용사라는 용어를 주관동사 대신 사용한다면 수식언의 하위 부류로 명사 수식언이나 관형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8.
- 구본관, 『남북의 품사 분류와 한국어 교육』, 『Korean 연구와 교육』 창간호, 2005, 149~169쪽.
- _____,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형태론편집위원회, 2010, 179~199쪽.
-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2015.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I』,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김건희, 『품사의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 언어유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글』 30, 한글학회, 2013, 75~118쪽.
- 김선미, 『한국어 관형사의 통사기능과 범주에 관한 고찰』,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1,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7, 1~29쪽.
- 김선영, 『형용사 품사 설정에 대한 재고찰』, 『돈암어문학』 19, 돈암어문학회, 2006, 254~280쪽.
- 김영옥,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1994, 87~109쪽.
- 김홍범·윤교찬,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에 관한 논쟁거리를 활용한 문법 토론』, 『한말연구』 55, 한말연구학회, 2020, 109~127쪽.
- 남기심 외,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2019.
- 노종균, 『품사분류의 방법에 대하여』, 『현대문법연구』 80, 현대문법학회, 2014, 157~174쪽.
- 리우원잉, 『유형론적 관점에서 다시 본 한국어 관형사의 품사 처리 문제: 중·일 양 언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중언어학』 66, 이중언어학회, 2017, 1~26쪽.
- 목정수,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한국언어학회, 2002, 71~99쪽.
- _____, 『일본어 형용사와 형용동사의 특성과 분포: 한국어의 품사체계와 관련하여』, 『한국일본어학회 학술 발표회 논문집』 2005(3), 한국일본어학회, 2005, 139~146쪽.
- _____, "A continuity of Adjectives in Korean: from a prototypical perspective", 『언어학』 45, 2006, 87~111쪽.
- _____, 『일본어 형용사와 형용동사의 유형론적 함의: 한국어 형용사 어근 등의 품사 분류와 관련하여』, 『언어연구』 25-3,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2008, 23~37쪽.
- _____,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의 설정 문제: 유형론적 접근과 국어교육적 활용』, 『국어교육』 128, 2009, 387~418쪽.
- _____, 『계사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시적)이다/(유명)하다’의 정체』, 『시학과 언어학』 19, 2010, 99~125쪽.
- _____,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 단어 부류의 정립: 그 유형론과 부사 파생』, 『언어학』 61, 2011, 131~159쪽.
- _____, 『품사론, 형태에서 의미로 아니면 기능에서 형태로: 한국어 9품사 체계의 몇 가지 문제』, 『한국언어학회 2015년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17~43쪽.
- 문숙영, 『설명을 위한 한국어 문법』, 집문당, 2023.
- 박진호,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국어연구』 12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1994.
- _____, 『언어학에서의 범주와 유형』, 『인문학연구』 1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265-292쪽.
- 손호민,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한글학회, 2008, 61~95쪽.

- 송경안·송진희,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언어학』 49, 한국어언어학회, 2007, 23~49쪽.
- 송창선, 「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문제」, 『국어교육연구』 54, 국어교육학회, 2014, 347~368쪽.
- 신승용, 「학교문법에서 품사 분류 기준 ‘가변어/불변어’의 문제점」, 『동서인문학』 65,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95~121쪽.
- 신지연, 「국어 품사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목원어문학』 17, 목원어문학회, 1999, 33~56쪽.
- 안주호, 「한국어 교육문법에서의 용언 설명에 대한 양상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2011, 131~159쪽.
- 오현아, 「문법교육에서 동사·형용사 품사 구분 문제: ‘잘생기다’류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48, 한국문법교육학회, 2023, 199~236쪽.
- 우순조, 「국어 어미의 통사적 지위」, 『국어학』 30, 국어학회, 1997, 225~256쪽.
- _____, 「‘다’의 분포와 형용사의 범주적 정체성」, 『한국언어학회 2009년도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학회, 2009, 211~220쪽.
- 유현경 외,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2018.
- 이병규, 「술어명사의 문법적 특성」, 『형태론』 7:1, 형태론편집위원회, 2005, 61~79쪽.
- 이선웅, 「국어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화』 2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35~58쪽.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이익섭·임흥빈, 『국어 문법론』, 학연사, 1983.
- 이익섭·채완,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이정택,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2003, 167~187쪽.
- 장영희, 「국어 관형사의 범주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2001, 201~220쪽.
- 최성호, 「한국어 품사론: 통사적 구성, 분포와 기능」, 『한국언어학회 2015년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학회, 2015, 3~15쪽.
- 최용환, 「품사 분류에 대한 검토」, 『문학과 언어』 31, 문학과언어학회, 2009, 55~78쪽.
- _____, 「국어 품사론 연구의 전개와 전망」,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2010, 33~60쪽.
- _____, 「국어 품사론의 교육적 접근」,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2011, 219~238쪽.
- _____, 「관형사의 문법적 특징」, 『어문학』 121, 어문학회, 2013, 107~136쪽.
- 최형용,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하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식’을 중심으로」, 『형태론』 14-2, 형태론편집위원회, 2012, 233~263쪽.
- 최형용, 「학교 문법 교과서의 품사 분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507~548쪽.
- 홍재성, 「한국어의 구조: 유형론적 특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163~187쪽.
- _____, 「국어학의 이해: 동사(1)」,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원, 2002, 137~153쪽.
- 황화상, 「어근 분리의 공시론과 통시론: 단어 구조의 인식, 문장의 형성, 그리고 문법의 변화」, 『국어학』 77, 국어학회, 2016, 65~100쪽.
- Beck, D., *The Typology of Parts of Speech Systems*, New York: Routledge, 2002.
- Bhat, D. N. S., *The Adjectiv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4.

- Croft, W. A., "Parts of speech as typological universals and as language particular categories", In Vogel P. M. & Comrie, B.(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Berlin: Mouton de Gruyter, 2000, pp. 65~102.
- Dixon, R. M. W.,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1, 1977, pp. 19~80.
- _____,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Dixon, R. M. W. & Alexandra Y. Aikhenwald(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Explorations in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49.
- Haspelmath, M., "Compar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ategories in crosslinguistic studies", *Language* 86:3, 2010, pp. 663~687.
- Hengeveld, M., *Non-verbal predication: Theory, typology, diachrony*, Mouton de Gruyter, 1992.
- Rijkhoff, J., "Whe Can a Language Have Adjectives?", In Vogel P. M. & Comrie, B.(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Berlin: Mouton de Gruyter, 2000, pp. 217~257.
- Sohn, H., "The adjective classes in Korean", In Dixon, R. M. W. & Alexandra Y. Aikhenwald(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Explorations in 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Wetzer, H., *The Typology of Adjectival Predication(Empirical Approaches to Language Typology 17)*. Berlin: Mouton de Gruyter, 1996.
- Yeo, Seungjoo(2004), "What is it like being an Adjective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0(4), Lnguag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pp. 1013~1033.
- _____, "On the syntactic category adjective in Korean", *Eoneohag* 42,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2005, pp. 23~40.

On theories of word class for Korean adjectives

Yi Eun-gyeong*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iscussion on word class for Korean adjectives and concludes that previous debates have proceeded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ypological theories of word class and the word class system specific to the Korean language. Haspelmath (2010) argued that the tools for typology and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individual languages need not align, suggesting that the former should be treated as “comparative concepts” and the latter as “descriptive categories.” This study adopt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ar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ategories and applies it to the discussion of Korean adjectives.

Comparative concepts are tools used for cross-linguistic comparison and define adjectives as words that describe or restrict the attributes of nouns. In contrast, descriptive categories classify word class based on the grammat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language. According to Haspelmath’s theory, compar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ategori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can be usefully employed to explain cross-linguistic comparisons and the internal structures of individual languages, respectively.

When adjectives are defined as a comparative concept, Korean adjectives can be categorized into verbal adjectives and nominal adjectives. Using semantic criteria such as “state” and “attribute” as comparative concepts, not only conventional adjectives but also determiners, attributive nouns, and predicate nouns expressing states can be included in the adjective category.

* Hongik University

By adding the attribute of “modification” and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markedness, only determiners and attributive nouns are included in the adjective category. This is because conventional adjectives primarily function as predicates.

When adjectives are defined as a descriptive category, a variety of discussions on word class classification become possible. However, based on criteria such as distribution and syntactic combinations, it is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conventional adjectives from verbs. The inclusion of adjectives depends on the degree of granularity in the classification of word class. Within the nine-part system of Korean grammar, adjectives can be established as a subcategory of verbs. Determiners can also be classified as a distinct word class if “modification” is used as the primary criterion and the concept of unmarkedness is included. Similarly, attributive nouns, which do not fulfill the unmarked function of nouns, may be grouped with determiners.

Although examples like “자상은 하다 (compassionate)” allow the separation of “자상 (compassion)” as a word for word class analysis, such constructions can also be explained as root-separation phenomena. The combination of “은” with “자상” can be analyzed as a phonological phenomenon, while functionally, it may be interpreted as being affixed to the entire structure of “자상하”.

Key words : word class, adjective, comparative concept, descriptive category, determiner